

《이까짓 거!》

갑자기 비오는 날, 우산도 없고
데리러 올 사람도 없을 때 참 속상하지요?
그림책 속 주인공의 처지가 딱 그래요.
그래도 우리의 주인공은 실망하지 않고
“이까짓 거!” 외치며 달려갔어요.
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
우리 모두 작은 용기를 내어
“이까짓 거!” 하고 외쳐 보아요.
뜻밖에도 어려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되고,
때로 친구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한답니다.



박현주 | 하루 종일 종이 인형을 오리며 노는 목소리 작은 아이였습니다. 만들고 그리는 것이 좋아 조소, 애니메이션,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다가 그림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같은 일을 하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신나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. 용기가 필요한 나와 어느 아이를 위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. 쓰고 그린 책으로 《나 때문에》, 《비밀이야》가 있습니다.

비가 온다.

우산도 없는데...

“마중 올 사람 없니? 같이 갈래?”

“아, 아뇨... 엄마 오실 거예요!”

‘사실은 거짓말이다.’

준호다. 작년에 같은 반. “홍준호! 너도 우산 없어?”
준호는 대답 대신 뛰어가며 말했다. “넌 안 가냐?”

문방구까지 달렸다.

다음엔 편의점까지

그리고 피아노학원까지.

“난 다 왔어. 잘 가!”
준호는 학원으로 들어가 버렸다.

어쩌지?

이까짓 거!

이번엔 정말이다.

“애, 우산 없니? 같이 갈래?”

“괜찮아요!”

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?

그림들 속에서 찾아보세요.

비가 온다.

우산도 없는데...

“마중 올 사람 없니? 같이 갈래?”

“아, 아뇨... 엄마 오실 거예요!”

‘사실은 거짓말이다.’

준호다. 작년에 같은 반. “홍준호! 너도 우산 없어?”

준호는 대답 대신 뛰어가며 말했다. “넌 안 가냐?”

문방구까지 달렸다.

다음엔 편의점까지

그리고 피아노학원까지.

“난 다 왔어. 잘 가!”

준호는 학원으로 들어가 버렸다.

어쩌지?

이까짓 거!

이번엔 정말이다.

“애, 우산 없니? 같이 갈래?”

“괜찮아요!”

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?

그림들 속에서 찾아보세요.